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장로 고당 (古堂) 조만식

김 철 봉

(마산 제일 교회 목사)

‘조선의 간디’로 널리 알려진 조만식은 1883년 2월 1일 평양 진향리에서 선비인 조 경학의 1남 2녀 중 독자로 태어났다. 부친 조 경학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독자인 아들의 교육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았다. 조만식 어린이는 7세가 되던 해 한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여 23세에는 기독교 학교인 숭실 중학교에 입학하여 26세 되던 1908년에 졸업하였다. 그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22세 되던 해인 1904년에 어릴적부터의 글 친구인 한 정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였다. 그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순간부터 그토록 좋아했던 술과 담배를 끊고 독실한 신앙에 몰두하였다.

숭실 중학교를 졸업한 그해(1908) 6월 일본에 유학하였고 동경의 세이소쿠(正則) 영어 학교에 입학, 영어와 수학을 배우는 한편 여기에서 간디의 ‘무저항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을 배워 평생 그의 사상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영어 학교를 졸업한 후 1911년 메이지(明治) 대학 전무부 법학과에 진학하였고 이때 송진우, 김성수 등을 만났다. 1913년(31세)에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계획하던 중 뜻을 돌이켜 귀국하

였으며 귀국 즉시 남강 이 승훈 장로의 청빙을 받아 정주 오산(五山) 학교 교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1919년 3·1 운동을 즈음하여 오산학교 교장직을 사임한 후 1921년에는 1932년까지 평양 YMCA 총무로 취임하여 그의 생애 중 가장 활발한 사회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일찌기 동경 유학생 시절인 1909년 동경 YMCA에서 동경 한인 교회 설립에 공헌하였으며 학생이면서 그 교회의 영수(領袖)로 추대받아 적극 헌신하였다. 그는 마침내 1922년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 평양 산정현(山亭峴) 교회의 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1. 그의 모범적인 기독교 사회 운동(1913-1936, 1945.8-1946.1)

그가 8년간 봉직했던 오산학교 교사, 교감, 교장 시절은 실로 모범적이고 이 땅에 길이 남을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사상 및 지도자상을 뚜렷하게 남겼다.” 그는 또

1) 고당은 1913-1919, 1920-1921, 1925-1926년 세 차례에 걸쳐 오산 학교에 재직하였다. 특히 교장이 된 것은 1915년의 일로서 교사로 취임한 지

11년간(1921-1932) 평양 YMCA 총무로 봉직하면서 오 윤선 장로 등과 함께 「조선 물산 장려회」를 조직하였다. 조직된 지(1920) 2년 만인 1922년에 이 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어 ① 국산품 애용 ② 금주 운동 ③ 금연 운동 ④ 폐창(廢娼) 운동 등을 통해 '절제와 국산품 장려운동'으로 확대되었다.²⁾ 그 결과 「민족자본육성」이라는 업적을 이루었으며 3·1 운동(1919) 이후 침체된 민족운동의 새로운 방향 제시 역할과 함께 교회를 비판하던 당시 사회주의 계열의 공격을 대응하는 '기독교 운동'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 실로 이때부터 그는 「조선의 간디」로 불리었다.³⁾

그는 세 번째 걸쳐 교장 취임을 시도하여(1920-1921 오산학교, 1925-1926 오산학교, 1926-1927 송인중학교) 번번이 일제에 의해서 중도 하차하는 수모를 겪었으나 민족의

2년 만의 일이었다. 고당은 봉급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하였다. 가족을 평양에 둔 채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는 교장이요, 선생이요, 사감이요, 사환이었다. 1인 4역의 주야 근무에 최선을 다하였다. 머리를 깎아 버렸고, 한복에 무명 두루마기에다 갓을 쓰고 짚신을 신었다. (한 근조, 위대한 한국인 고당 조만식, 서울: 태극 출판사, 1972), p. 74.

- 2) 고당의 국산품 애용은 철저하였다. 학교 기숙사에서 기거하는 동안 치약을 쓰는 일이 없었다. 늘 국산 소금으로 양치질 하였다. 비누는 팔가루로써 만들어 사용하였다. 일제 비누 사용하기를 극력 회피한 것이다. 고당은 일생 동안 늘 머리를 기르지 않고 간디 스타일을 하였다. 또 학생들의 술, 담배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었다. 그 반면 학생들의 건강과 청결을 위하여 공동 목욕탕을 설치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한 근조, 같은 책, pp. 74-76).

독립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교육'에 있음을 믿고 다방면으로 민족 교육에 헌신하였다. 1927년 신간회(新幹會) 창설에 참여하여 중앙 집행위원 및 평양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에는 관서(평안도) 체육회를 조직,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1932, 11월에는 당시 경영난과 내분으로 파산의 경지에 이른 민족지 「조선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조 병욱, 주요한, 방 응모 등과 함께 민족지를 회생시킨 후 1933, 7월 방 응모에게 자리를 넘기고 평양으로 돌아왔다.

그후 1937-1945년 해방 때까지 사회 활동에 철저한 제동을 받았다가⁴⁾ 해방이 되자 1945, 8, 17, 이 윤영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약칭 건준) 평남 위원회로 조직, 위원장이 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하였다. 그러나 공산당과 소련군의 방해 공작으로 결국 「건준」은 해체되고 그 대신 1945, 11, 3, 조선 민주당을 창당, 당수가 되었으나 이 역시 공산주의자들의 술책으로 비운을 맞고 말았다.

- 3) 고당의 민족 사상은 다음 두 가지 일에서도 빛난다. 그는 끝까지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투쟁하였으며 한복을 평생토록 고수하였다. 창씨개명 문제를 설득하고자 평양에 들렀던 조선군 사령관 이타가키(板垣德四郎)가 직접 그를 만나고자 요청하였으나 고당은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하여 몸을 숨기면서까지 만나 주지를 아니하였다.(기독교 대백과 사전 및 앞의 책, p. 1204)
- 4) 1938년 3월, 도산 안 창호가 순국하였을 때 일제의 무서운 감시와 방해 속에서 「장례 위원장」이 되어 서울에 올라와 장례를 행하기도 할 만큼 고당은 실로 용기와 신의를 가진 지도자였다(같은 책, p 1204).

필자가 고당 조만식 장로의 '기독교 사회 운동'을 이처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이란 「내 교회, 내 가정, 내 교단, 내 교파」 정도의 울타리 안에서만 모범적이고 헌신적일 것이 아니라 민족과 사회와 나라를 생각하는 데까지 생각과 행동을 넓혀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자 한다.

2. 그의 모범적인 교회 봉사

고당은 1922년 40세의 나이로 평양 산정현 교회의 3대 장로로 장립을 받았다. 그는 이미 동경 유학생 시절, 한인 교회 설립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영수(領袖)로 교회 봉사에 깊이 헌신했던 경험이 있었으므로 산정현 교회의 장로로서 신앙과 인격, 실천 모든 면에서 참으로 모범적이고 중후한 발자취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1935년 산정현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앙 간에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산정현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송 창근(宋昌根) 박사였다. 그는 사실 자유주의 신학을 한국에 수입해 온 장본인이었다. 그의 신앙과 목회는 산정현 교회 당회원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결국 송 박사는 부산진 교회로 옮겨 가야만 했었다. 이에 산정현 교회 당회는 한국의 예루살렘인 평양 성에는 당시 한국 교회 보수 신앙의 거두격인 주 기철(朱基澈) 목사를 모셔다 놓아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

고 고당 조만식 장로와 김 동원 장로를 청빙 위원으로 정하여 1936년 6월 마산으로 파송하였다. 주 기철 목사는 고당이 교장으로 있던 오산 학교를 졸업하였으니 고당의 제자이 기도 했다. 마산 문창 교회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는 주 기철 목사를 평양으로 청빙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결국 청빙에 성공하였다.

이 담임 목사 청빙 사건에 있어서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 특히 장로들은 고당 조만식 장로에게 적어도 두어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고당은 교회 목회자는 어디까지나 신앙이 보수적이어야 하고 영적인 면과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고당 자신은 기독교 사회 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크게 활동하였으나 반면 '신앙'은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사상을 견지하고 있었다. 둘째로, 그는 제자라고 해서 주 기철 목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다. 그토록 중대한 여러 가지 일에 얽매여 있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제자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마산(馬山)까지 주 기철 목사를 모시러 직접 내려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지도자였던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이다.

3. 그의 모범적인 신앙관

고당 조만식 장로는 개인적 신앙 역시 모범적이었다. 그의 진솔한 신

양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마침 전해지고 있다. 조 만식 장로 곁에서 함께 민족 운동과 한국 민주당 창당 작업을 도운 한 근조(韓根祖)씨는 「위대한 한국인 고당 조 만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1935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금강산 장안사(長安寺)에서 조선 기독교 연합회 주최로 하령회(夏令會)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고당은 「기독교인의 생활」이라는 연설을 장시간에 걸쳐 하게 되었다. 이 연설에는 그의 신앙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민족관이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인가?……신앙에 몇 가지 유형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① 단일적(單一的) 신앙

이것은 나이 많은 노인네들, 부녀자, 아동들 사이에 흔히 있는 것으로 남이 믿으니 나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항상 즐겁고 기쁘며 또 나의 비애, 우수, 설움 등을 오직 기도로써 하소연하며 예배당에 오고 가며 모였다 헤어지는 것이 유일한 낙(樂)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과 그 밖의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가장 행복스런 신앙입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단순하게 믿는 신앙 ‘다만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좀 이지적인 지식층 사람들은 잘 긍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② 이지적(理智的) 신앙

이 종류의 신앙은 이지가 좀 발달된 지식층의 남녀들의 신앙입니다. 이지(理智)로 비판해 가면서 의뢰(지식)와 신앙의 혼합체로써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이지의 완전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정확한 신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주와 만물은 반드시 조물주가 있어서 창조하였을 것이고 이를 섭리해 오거니 하며 예수의 신격(神格)은 그만 두고라도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완전한 분으로서 특히 종교상의 큰 천재요 동서 고금의 가장 완전한 대종교가이며 그의 교설(敎說)은 믿을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종교 중에서는 기독교가 가장 문명한 민족의 종교라는 등 이러한 견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지적인 신앙은 정확한 판단으로 확실한 신앙을 얻으면 다행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회의의 함정 속에 빠져서 나올 수 없이 될 위험성이 많음을 알아야 합니다.

③ 영감적(靈感的) 신앙

이 종류의 신앙은 비교적 건실하고 솔직하고 충성스럽고 열정적인 청장년들 사이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신앙으로서 신앙 중에서는 가장 웅위(雄偉)한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신앙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감수성(感受性)있는 사람이 영감을 받기 쉽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학식과 성의와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다메섹(Damascus) 도상에서 예수의 경성(警醒)을 받고 일거에 깨어지지 아니할 믿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로 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 하시던 이후 3년간 예수님과 동고 동락하였으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고 제일 먼저 깨달았지마는 주님의 재판정에서는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다 오순절(五旬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음에야 대사도(大使徒)가 되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의 신앙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신앙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교역자라기보다도 일생을 두고 주님의 충성스런 종으로 이 나라 백성을 위하여 몸 바쳐 사명을 다하여야 할 청년 남녀 교역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영감적(靈感的)이라 할 때에 우리는 성신 충만이니, 신비주의니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참'과 '나의 참'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에게 대하여는 경건과 신모(信慕)가 생기게 되고 인간에 대하여서는 항상 충성과 애휼(愛恤)이 있게 되는 그러한 경지를 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이 동서 고금을 통하여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것은 지극히 희귀한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감동을 받으려고 희망만 하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찬스를 얻지 못하며 안 된다 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영감은 착한 마음(良心), 올바른 생각(正思), 뜨거운 정성(熱誠)만 있으면 누구나 쉬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찬스(chance 기회)가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얻었다가도 다시 사욕(邪慾), 허영, 정욕 등에 가리운 바 되어 곧 일실(逸失)하고 말 뿐입니다.

이상 단일적 신앙, 이지적 신앙, 영감적 신앙 등을 들 수 있는데 이것들은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는 유형에 속하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종교 기관에 취직하기 위하여, 혼인하기 위하여, 자녀들의 방탕을 막기 위하여, 가정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지어 담배나 술을 끊고 예배 집회를 사교, 답소하는 곳으로 오인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은 모두 타산적 위장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제군들이 가장 경건하고 진실하며 충성스러운 '정통적 신앙가'가 되며 제군들 중에서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목회자(牧會者),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활동가가 배출되어 조선 기독교회를 부흥케 하며 앞으로 제2의 50년 동안에는 이 나라 백성을 구제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희구합니다. 참으로 조선 문제의 해결은 기독교회의 부흥과 교역자들의 수완 발휘와 지대한 관계가 있다 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둘 것은 비드워드 박사의 한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조선에서 전도함은 영혼을 천당으로 구원하기 위하여서만 아니라, 금세에서 민족적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앞세우고 큰 뜻을 품고 진정한 봉사를 한 뒤에야 진정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나는 결론을 말씀 드리면 기독교인의 생활은 '좋은 신앙' '좋은 수양'을 가지고 '진정한 봉사'를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함이외다」

고당 조만식 장로는 일제 말에 태평양 전쟁 이후 학도병 지원 유세를 강요하는 일제측의 회유에 끝까지 거부하였고 1944년 주 기철 목사가 평양 옥중에서 순교하고 교회가 일제의 강제에 의해서 폐쇄되자 그는 울분을 삼키며 1945년 봄, 식구를 이끌고 강서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다.

필자는 본고에서 고당 조만식 장로의 신앙적 면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소개한 바를 통하여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큰 감명과 느낌을 얻기를 바란다.